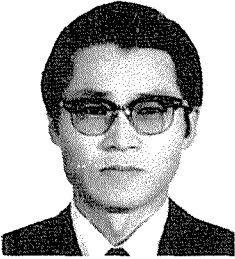


低油價時代의 對應戰略



郭 相 瓊

(高麗大 政經大教授)

I. 序 言

1 1980年 11月 現物市場에서 배럴당 40달러 까지 치솟았던 原油價格은 그 후 下落을 계속하여 이제는 배럴당 20달러에 이르렀다. 특히 금년에 들어 와 諸國의 公示價格 (長期供給價格)이 배럴당 3~5달러씩 속속 下落하여 國際原油市場은 油價下落時代로 접어 들게 되었다. 이러한 油價下落은 世界經濟에 다각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原油供給에서 全量輸入에 依存하고 있는 우리 나라도 國際原油價格의 下落으로 역시 다각적인 經濟의 變化가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本欄에서는 油價引下의 背景과 앞으로의 油價動向, 油價引下의 여러 가지 기대되는 效果等을 살펴 보고, 油價引下에 對한 對應戰略을 披瀝해 보기로 한다.

II. 油價引下의 背景과 展望

原油의 需給變動에 敏感한 國際現物 市場의 原油價格이 최근에 계속 하락하였는데, 그 幅이 배럴당 40달러에서 배럴당 25~26달러가 되는 정도였다. 뿐만 아니라 종래에는 現物市場에서 거래되는 物量이 全體의 10~15%에 불과하였으나, 최근에는 이 比重이 크게 높아져 20~

30%나 되고 있다. 이와 같이 去來物量의 比重이 높아지면서 價格이 낮아지는 國際原油現物市場의 動向은 OPEC를 비롯한 諸石油輸出國의 公式原油價格이 下落하도록 지대한 압력이 되어 왔다.

금년 2月初 소련이 油價를 배럴당 2.15달러 引下한 것을 기폭으로 2月 18日에는 英國과 노르웨이가 北海原油를 3~3.5달러 인하하였고, 2月 21日에는 나이지리아가 OPEC 會員國으로서 배럴당 5달러를 인하하여 OPEC에서도 공식적으로 3月 14日 5달러 인하를 결정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油價引下競爭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는 대단한 關心事로 되어 있다.

이러한 油價引下의 背景은 여러 가지의 複合的인 作用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의 急激한 油價上昇으로 石油消費가 急激히 減少하였다. 消費減少가 크게 지속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原油市場에서의 供給過剩을 효과적으로 불러 일으켰다. 消費減少는 價格上昇의 直接的인 效果와 世界景氣의 持續的인 沈滯에서 誘發되었다고 할 수 있다. 石油輸出國中에서 非OPEC國家들은 供給制限으로 原油價를 維持하려는데 극히 소극적이었고, 비록 OPEC會員國이 供給制限으로 消費減少에 對處하려 하였으나, 力不足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하

여튼 市場需給에서 供給過剩이 持續되었다.

둘째, 非OPEC產油國들의 原油生産이 增大되고, 現物市場의 去來量이 增大되면서 原油의 販賣競爭이 치열해지고 이러한 경쟁은 油價를 下落시키는데 效果의이었다. 非OPEC 產油國들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OPEC의 位置는 약화되었고, OPEC의 위치가 약해지면서 OPEC의 카르텔結束力이 약화되었다. 따라서 OPEC의 油價水準 維持 努力이 奏效하지 못하고, 油價 下落防止에 失敗하였다.

OPEC의 分열과 非協力

셋째, OPEC内部에서의 分열과 非協力으로 말미암아 OPEC의 供給制限이 實效를 거두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原油價格 維持를 위한 戰略에서 背信行爲가 단연하며 供給過剩이 深化되었다. 즉 OPEC自體의 問題가 심각하였다.

넷째, 石油輸入國의 脫石油政策이 奏效하여 需給의 不均衡을 加速시키고, 石油輸出國을 不安하게 만들어 市場攪亂이 더 심화되었다.

다섯째, 先進工業國의 政策當局과 메이저들이 物量調節과 協力으로 原油市場을 操作하여 攪亂을 深化시키고, 油價引下를 誘導하는데 成功하였다.

이러한 여러 가지 作用이 複合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油價引下의 主된 背景이라 할 수 있다.

지금의 油價引下가 더욱더 進展되리라는 展望과 앞으로 상당한 기간(5~6年)에 第3의 石油波動은 없을 것이고, 第3의 石油波動이 그 후에 있다 해도 과거와 같이 심하지 않으리라는 見解가 있다. 그 근거로는 첫째, 모든 石油輸入國이 消費增大를 최대한으로 억제하고, 대책을 강구하므로 消費增加가 쉽게 大幅 일어나지 않는다고 본다. 둘째, OPEC의 位置가 쉽게 回復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많은 非OPEC國家가 계속 石油增産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셋째, OPEC의 카르텔結束力이 쉽게 增進되지 못할 것으로 본다. 그토록 어렵게, 또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OPEC의 카르텔이 회복되는데에도 시간이 걸리고 더 큰 노력과 환경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넷째, 石油輸入國의 脫石油政策이 지속되

고 石油代替도 進展될 것으로 본다. 다섯째, 메이저와 先進國이 市場操作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고, 이러한 노력이 성공적일 것으로 보는 것이다.

Ⅲ. 油價引下의 期待效果

原油價格의 引下는 직접·간접으로 경제에 各적인 影響을 미치게 될 것이다. 어디에 어느 정도 影響을 미치게 되느냐를 어느 정도 精確하게 계산하는 데에는 많은 時間과 비용을 요하므로 概略적인 方向만 살펴 보기로 한다.

첫째, 經濟環境의 改善이 있을 것이다. 油價引下는 世界經濟의 回復에 큰 效果를 나타낼 것이고 世界經濟의 回復은 世界交易量의 增大를 가져와 우리 나라와 같은 國家에는 輸出需要의 增大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油價引下는 各각적으로 經濟活動에 活氣를 불어 넣어 갖가지 需要增大에 效果를 나타낼 것이다.

둘째, 物價安定을 비롯한 經濟安定에 效果가 있을 것이다. 油價引下는 에너지價格의 下落을 가져오고, 이것은 一般물가의 安정을 도모하게 될 것이다. 一般물가의 安정은 賃金, 金利, 換率等 여러 部門의 安정에 效果를 나타낼 것이다. 다만 原油價格 下落이 石油製品價格을 下落시킬 경우에 效果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效果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셋째, 國際收支改善에 도움이 될 것이다. 油價引下는 原油輸入代錢을 줄이게 되므로 石油消費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 限 국제수지는 개선 될 것이다.

넷째, 經濟成長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앞에서 지적한 輸出伸張, 經濟安定, 國際收支改善 等은 景氣를 好轉시켜 諸經濟活動이 활발해지고, 經濟政策의 效果도 더욱더 奏效하여 經濟成長率을 높이는데 效果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 建設輸出이 減少할 것이다. 우리 나라는 建設輸出이 產油國에 偏重되어 있고, 產油國의 石油收入減少는 우리 나라建設에 對한 需要가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이러한 效果는 原油價格引下가 國內石油類價格에 어느 정도 反映되느냐 또 油價引下에 對應

하는 어떠한 效果的인 政策이나 措置가 取해지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 질 수 있는 것이다.

IV. 油價引下의 對應戰略

原油價格引下를 效果的으로 活用하여 보다 有效하게 國內經濟를 安定시키고 發展시키기 위해서는 有效 適切한 對應策이 講究되어 效果的으로 實施되어야 할 것이다. 原油價格下落에 對한 對應戰略을 概略的으로 披瀝해 보기로 한다.

첫째, 油價引下와 景氣活性化에 따른 石油消費增加에 對한 對備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 對한 조치로서는 먼저 脫石油政策을 꾸준히 推進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의 油價가 낮은 것도 아니고, 우리 나라로서는 全量 輸入하고 있으므로 石油消費를 줄이도록 더욱 더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代替에너지開發과 石油消費節約은 계속 해서 強化되어야 할 것이다. 石油消費增加를 抑制하는 政策은 더욱 強化되어야 한다. 동시에 石油節約도 強化되어야 한다. 施設改善, 利用方法改善, 利用機器改善 등을 계속 推進하여 生産單位당 石油消費量을 계속 줄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原油價格의 引下에 따른 石油消費增加를 抑制하는 方案으로 原油에 關稅를 부과할 수도 있다. 그러나 덮어 놓고 그렇게 하기 보다 關稅를 부과하지 않았을 때, 소비가 얼마나 증가할 것인지도 따져 보아야 하겠지만, 關稅부과가 없으면 油價引下가 經濟全盤에 얼마나 큰 效果를 가져 올 것이며, 이것을 희생하면서 반드시 關稅를 부과해야 하는지는 따져 보고 결정할 필요가 있다. 關稅를 부과하지 않고, 原油價格引下를 100%經濟的 效果로 활용하는 것이 더 유익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와 사정이 다른 美國과 같은 나라에서 關稅를 부과한다고 우리도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는 의문이다. 關稅를 크게 부과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油價體系의 整立

둘째, 石油類價格體系를 整立하며 油價引下의 效果를 最大限으로 해야 할 것이다. 油價引下의 效果는 直間接으로, 長短期에, 그리고 눈에

보이게 안보이게 너무나 다양하고 복잡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오히려 原油價格引下에 따른 國內石油類製品價格의 調整은 온 國民이 납득하여 승복할 수 있는 原則에 입각해야 할 것이다. 油價調整의 原則을 대충 나열만 해 보면, ① 國民經濟 全體에 대한 效果를 모든 면에서 파악하여 得失에 正직하게 따라야 하고, ② 景氣, 物價, 對外競爭力, 其他經濟事情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③ 收益者負擔 原則이 적용되어야 하고, ④ 政府의 利害得失과는 無關하여야 하며, ⑤ 製品 需給의 自律性을 提高하는 方向으로 調整하여 ⑥ 分明하고 納得할 수 있는 根據가 明示되어야 한다. 또한 油價가 引下될 때에는 油價를 統制하는 方向으로 油價를 調整하는 것이 效果的이겠지만, 油價가 下落하는 경우에는 競爭의 利點을 살릴 수 있는 기회로서 油價를 自律化하는 方向으로 油價體系를 整立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原油價格이 앞으로 더 내릴 전망이 짙을 때에는 처음의 引下를 100% 國內油價調整에 반영하여 效果를 최대한으로 살리고 消費抑制를 위한 效果는 다음 차례의 引下에서도 하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油價調整은 어디까지나 油價自體의 整立과 調整의 效果를 최대한으로 나타내게 하는 方向에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油價調整이 절대로 惡用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石油產業의 多변화

셋째, 石油產業이 多邊化되어야 한다. 精油業體는 國際原油市場에서의 치열한 競爭의 利點을 效果的으로 利用하며 보다 저렴하고 有利한 條件으로 原油를 導入하도록 더욱더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原油供給의 問題가 없고 價格이 下落한 기회를 利用하며 石油產業이 事業을 多邊化하며 綜合에너지 產業으로서의 發展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石油產業의 業體가 에너지와 無關한 事業을 새로이 시작하지 않는 限, 石油產業의 關聯業體가 經營多角化를 增進시키는 것은 企業의 發展과 產業의 發達, 나아가서는 에너지問題解決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이다. 綜合에너지產業의

發展은 規模의 經濟를 살리고, 에너지需給의 원활에 기여가 클 수 있으며, 國家의 에너지政策이 보다 效果의으로 推進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장려되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넷째, 石油製品의 輸入自由化를 신중히 다루어야 한다. 經濟 전반에 걸쳐 自律化와 輸入自由化로의 政策方向이 強化되고 있는 추세와 石油類製品 國際市場의 競爭이 치열해져 가격 덩핑이 심해질 경우 석유류제품의 수입자유화 추진은 필연적인 과제로 대두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석유류제품의 수입자유화에 대비한 정책방안과 石油産業의 對應策이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석유류제품의 수입자유화는 도입된 原油의 낭비문제, 原油도입억제의 효과, 經濟全般에 미치는 效果, 기타 經濟的 興件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제경쟁력을 의식하지 않고 국내경제의 무리한 희생을 강요하면서 수입자유화를 무리해서 억제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合理的인 調整이 있어야 하겠으나, 輸入自由化에 대한 對應策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석유류제품의 수입자유화에 대비하며 특히 石油産業의 效率性 提高와 經營多角化가 더욱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綜合的인 經濟政策

다섯째, 餘他 對應策도 講究되어야 한다. 原油 價格의 引下로 建設輸出이 不振해지는데 對한 對應策도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 이에 對해서는 建設輸出이 伸張될 수 있는 效果를 一般問題로서 다루어야 할 과제이다. 다만 平衡의 維持라는 면에서 油價引下에 依한 國內經濟의 利得을 고려하여 建設輸出에 對한 支援을 強化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平衡의 原則도 經濟的 效果에 優先할 수는 없는 것이다. 油價引下의 效果를 最大限으로 活用하기 위해서는 金融政策을 비롯한 一般經濟政策도 效果의으로 遂行되어야 한다. 適正通貨供給의 維持, 適正利率의 維持, 成長과 安定의 적절한 調和 等 諸政策이 效果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번 기회에 原油備蓄의 國際水準이 達成되어야 한다. 世界原油市場에서의 供給過剩 現象이 언제까지나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고, 언제 국제분쟁과 같은 돌발 사고가 발생하여 供給不足現象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原油備蓄量을 國際水準으로 확보하지 못한 것은 가장 큰 에너지政策上的 虛點이었다고 할 수 있다. 原油確保와 같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에서는 최대한으로 安定 위주의 정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조금도 위험부담의 과오를 담당해서는 안 될 것이다. 모든 石油輸入國이 原油備蓄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데 우리나라가 비축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국가시책이다. 또한 이번 기회에 原油備蓄을 제대로 해 놓지 못하면, 엄청난 代價를 치러야 하고 이번과 같은 好機會를 잡을 수 없을 것이다.

V. 結 言

油價引下에 대한 對應戰略은 한마디로 原油市場의 變化에 依한 利得을 最大限으로 活用하는 것이다. 利得을 效果적으로 갖는 데에는 原則의 確立, 調和의 維持, 平衡의 提高 및 機會의 活用을 지키면 그만큼 極大化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經濟的, 物質的 效果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으면서도 중요시되고 있는 心理的인 效果도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인간의 經濟活動도 氣分에 의하여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첫번째 油價引下는 國民에게 절대적으로 들려주는 인심이 效果적일 수 있을 것이다.

原油로부터의 關稅收入을 놓고 나누어 먹자는 要求와 反抗이 꼬리를 물고 있다. 어느 是非도 一理는 있을 수 있다. 그래서 是非는 끝이 없을 것이다. 아마도 가장 公平한 또 是非를 가장 效果적으로 終熄시키는 解決方法은 石油에 關聯된 收入은 石油에 關聯하여 使用하는 것이다. 이 原則이 考慮되는 것이 油價引下의 가장 效果的인 對應策인 것 같다. *